



강종래 작 '다도해의 비경'



이존립 작 'island'



이형모 작 '백도연가'



조성호 작 '남해서정'



제31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작 'Integral' 양코르 무대가 오는 28일 북구문화센터에서 펼쳐진다. 공연의 한 장면. <댄스컴퍼니 Sun&Friends 제공>

섬에 대한 단상 이미지를 담다

‘섬, 그 너머의 섬’전…8월 31일까지 고흥 남포미술관
강종래·고정남·김상선·조성호 등 8명 작가 31점 전시

어느새 다가온 여름, 머릿속에 질푸른 바다와 섬의 풍경이 떠오른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섬의 풍경은 더 사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남도는 섬의 고장이다. 유인도를 포함해 무인도 등 많은 섬들이 산재한다. 섬은 인문학적, 생태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자원의 보고(寶庫)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섬을 토대로 예술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그런 연유다.

초여름 섬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남포미술관(관장 곽형수)에서 지난 4일 개막해 오는 8월 31일까지 펼쳐지는 ‘섬, 그 너머의 섬’전. 강종래, 고정남, 김상선, 김은수, 이윤배, 이존립, 이형모, 조성호 등 8명 작가가 참여했다.

작가들이 생각하는 섬에 대한 단상과 이미지를 담은 회화와 사진 등 31점이 출품됐다.

예술가들에게 섬은 끊임없는 상상력의 대상이다. 영감의 원천이자 교감의 대상이기도 하다. 작가의 경험이나 사유에 따라 섬은 천의 얼굴을 지닌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모된다.

‘섬, 그 너머의 섬’이라는 주제처럼 작가들은 섬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장한다. 관람객들은 섬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갖기 마련이다. 섬 그 너머에는 섬이 있을 수도, 바다가 있을 수도, 염전이 있을 수도,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

강종래의 ‘섬’은 신비롭다. 하늘에 떠 있는 갈매기와 갈매기 형상의 구름은 다정하면서도 평화롭기 그지없으며 삼각형으로 단순화된 산들은 미려한 곡선이 특징이다. 그 안에 펼쳐진 잔물결이 일렁이는 파도와 너울 위를 떠다니는 배의 풍경은 전형적인 섬마을의 모습을 담

고 있다.

김상선의 ‘바람소리-금오도’는 형형색색의 풍경을 담고 있다. 가을날 바람 부는 해안의 풍경을 붉은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으로 치환했다. 이곳에서 바람은 울긋불긋한 색으로 전이돼 소리로도, 눈으로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이존립의 ‘island’는 섬의 조형적인 미감을 선사한다.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과 꽃들을 클로즈업해 그 사이로 저편 꽃에 물든 섬을 볼 수 있다. 푸름과 파랑, 빨강과, 흰색의 색감이 주는 선명한 대비가 걸림이 없이 시원하다.

한쪽의 수채화 같은 이형모의 ‘백도연가’는 섬의 비경과 물 속의 신비로운 생태를 대조적으로 표현했다. 바다거북의 자유로운 수영, 견고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솟은 기암괴석은 자연이 부려놓은 이색적인 풍광이다.

아련한 색감과 정조로 구현한 조성호의 ‘남해서정’은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은 풍경이다. 어느 어촌에나 있을 법한 장면이지만 어느 곳의 풍경과 이미지와는 변별된다. 이맘 때 남도의 어느 섬이든 방문하면 볼 수 있을 모습은 오래 알아온 지인처럼 편안하다.

이윤배의 ‘Song for Love-Blue Fish’는 파란의 깊은 색감이 사랑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섬의 생태를 추상적이면서도 은유적으로 표현해, 관객들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사유의 범주를 넓힐 수 있다.

한편 관형수 관장은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섬을 주제로 각기 다른 감성과 기억 등을 개성적으로 풀어냈다”며 “섬이 내재하고 있는 인문적, 생태적, 사회적 의미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 학생들 69명



장민지 작 '방 그리고 창'

잇다

7월 13일까지
ACC 대나무정원

과거와 현재를 잇는 방법은 많다. 예술을 매개로 역사를 잇는다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 가운데 하나다.

현대적 의미의 계승은 기법과 방법적인 면 외에도 해석의 다름을 포괄한다. 새로움이란 늘 기존의 것을 토대로 다른 면을 보여주고 관점을 달리하는 데서 발현된다.

광주예술고등학교(교장 고용선, 예고) 한국화과 학생들이 ‘잇다’전을 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에서 오는 7월 13일까지 ACC 대나무 정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시대적 연결의 의미를 함의한다.

이번 전시는 ACC가 청소년 문화예술 협력 차원에서 기획했으며 ACC는 2024년부터 대나무 정원 일부를 전시 공간으로 바꿔 지역 예술가와 예비 예술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모두 69명 학생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는 실기작품 50여 점, 입체작품 7점이 출품됐다. 특히 대나무 정원이라는 장소성을 내재하는 공간에서 전시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학생들은 고전적인 한국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변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회화 위주의 장르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형 언어를 가미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김미수의 ‘청운산수’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 산자락을 뒤덮은 구름과 기느리란 물줄기는 유순하면서도 아름답다.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한낮의 더위는 저만치 물러나는 것 같다.

장민지의 ‘방 그리고 창’은 현대인 듯 전통인 듯 어제와 오늘의 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 물가를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오리는 사각의 창 너머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 사이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한낮의 적요를 맑게 깨뜨리며 풍경과 작품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잇다’의 의미를 사유해 볼 수 있는 예비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는 시간”이라며 “ACC는 앞으로도 지역예술인, 예비예술가들을 위해 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인테그랄’ 다시 무대에

댄스컴퍼니 Sun&Friends, 28일 북구문화센터

관계의 본질을 향한 깊은 성찰이 무대 위에서 다시 펼쳐진다.

제31회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해 연기상, 안무상까지 휩쓴 화제작 ‘인테그랄(Integral)’이 오는 28일 오후 5시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양코르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202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창작무용단 ‘댄스컴퍼니 Sun&Friends’의 대표 안무가 선유라가 관계의 층위를 수직과 수평의 레일로 형상화한 이 작품은 감정과 갈등, 소외와 결속을 무용으로 풀어낸다.

작품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실연’에서는 관계의 시작과 끝, 어긋남의 순간을 표현하고, ‘수직 혹은 수평’에서는 갈등의 구조를 드러낸다.

러낸다. 이어 ‘필수불가결한…’에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인력의 실체를, 마지막 ‘인테그랄’에서는 보이지 않던 관계의 본질과 통합을 탐색한다.

이번 공연에는 최근 예술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테이지파이터’에서 활약한 현대무용수 김현호가 특별 출연해 무대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

한편 댄스컴퍼니 Sun&Friends는 ‘예술의 일상화, 일상의 예술화’를 모토로 지역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창작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9년 창단 이후 광주를 기반으로 한 공연과 교육, 레퍼토리 개발 등 지역 창작 무용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석 5000원, R석 1만원, 티케팅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42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라의 밤'이 오는 2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공연의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청소년 협연의 밤…마에스트라의 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2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국악 무대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국악계의 지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무대이자, 전통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지르는 실험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142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라의 밤(Noch de Maestra)’을 연다. 이번 공연은 국악 전공 청소년 지휘자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 지휘자 중심의 특별 무대로 꾸며진다.

‘청소년 협연의 밤’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이번 무대는 미래의 마에스트라들을 조명하며, 국악계의 지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의미를 더한다. 특히 작년 공연에서 관객 투표 1위를 기록한 김상욱 지휘자를 제외하면, 모두 여성 지휘자로 구성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악 무대의 젠더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기획이기도 하다.

무대는 김상욱 지휘자의 자작곡 ‘향해’로 문을 연다. 옛모리·자진모리·세마지 장단이 교차

하며,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탐험의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후에는 여성 지휘자 6인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박서빈 지휘자는 청산별곡을 모티브로 한 역동적인 곡 ‘청산’을, 진유정 지휘자는 금강의 흐름을 음악으로 담아낸 ‘역동의 강’을 선보인다. 이어 김라원(10) 지휘자가 ‘아리랑 랩소디’를, 김소리 지휘자가 ‘벚노래’를, 김성은 지휘자가 ‘춤추는 바다’를 연주한다. 마지막 무대는 정운해 지휘자가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기념곡 ‘불의 춤’으로 장식한다.

특히 최연소 객원 지휘자 김라원 양의 참여는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다. 국악을 통해 지휘자의 꿈을 키웠다는 그는 “국악이 주는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며 이번 무대에 대한 설렘을 전했다.

전석 1만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케팅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제6회 현구문학상’ 공모

현구기념사업회, 7월1~31일 접수

김현구(1904~1950)는 1920년께 김영랑 등과 문학모임을 결성해 활동했던 강진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는 1930년 ‘시문학’ 2호에 ‘남이여 강물이 뚝시도 퍼뚫습니다’를 발표하며 시작활동을 펼쳤다. 이후 그는 시문학과 일원으로 함께하는 한편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전개해나간다. 특히 강진 등 자연 공간을 배경으로 형상화한 서정적인 시는 평단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김현구의 삶과 시 세계를 잇기 위한 ‘제6회 현구문학상’을 공모한다.

강진군은 1930년대 시문학과 대표 시인 김현구의 생애와 시세계를 기리기 위한 ‘제6회 현구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강진군과 현구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고향 공간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시인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뜻도 담겨 있다.

공모 부문은 운문(시, 시조, 동시)과 산문(소설, 수필, 동화, 평론/희곡)으로 나눠 진행되며 상금은 각 부문별로 1000만 원.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광생가길 14 시문학 파기념관)

응모 자격은 등단 10년 이상(2015년 7월 1일 이전 등단) 작가가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국내에서 출간된 단일 저자 작품집만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품집 또는 수록작 중 한 편이라도 타 문학상 수상 이력이 있을 경우 공모는 불가하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6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 및 신청서는 강진군청 홈페이지 참조.

이석우 시문학과기념관장은 “이번 김현구문학상 공모는 영광과 더불어 강진의 대표 시인인 김현구의 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관심있는 시인, 작가들의 많은 응모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